

## 청소년의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의 친밀감 형성: 자기개방과 반응성 친밀감을 중심으로\*

우 성 범                      권 정 혜                      양 은 주<sup>†</sup>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근의 인터넷과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고 있으며, 온라인 대인관계의 영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대인관계의 친밀감의 형성을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해 Reis와 Shaver의 친밀감의 대인관계모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청소년 6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SNS 이용빈도, 온, 오프라인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각각 자기개방과 반응성, 친밀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응성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프라인에서는 자기개방이 반응성을 매개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혀내어, 온라인 관계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가설인 감소가설과 촉진가설의 통합적 이해에 기여하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친밀감의 대인관계 모형, 오프라인, 온라인,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30-B00240).

† 교신저자: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3290-2865, E-mail: yange@korea.ac.kr

## 서론

청소년기는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으로서의 자율성을 배우며 타인과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Erikson, 1963). 특히 청소년의 경우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자아 효능감(Buhrmester, 1990)과 자아정체감(Grotevant & Cooper, 1985), 사회성(Buhrmester, 1990), 학교성적 혹은 학교생활 적응(이규미, 2005; 김상미 등, 2011; Berndt & Keefe, 1995) 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삶의 핵심적인 요소들의 적응적인 발달을 예측해준다. 이처럼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폭넓은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고 있으며(Lenhart, 2010)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 학업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필수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조남익, 2011). 청소년이 대인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공간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의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Subrahmanyam, Reis, Waechter et al., 2008),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이 대인관계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활발히 발전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더 지대한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사교의 장이

그들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argh와 Mckenna(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자기개방을 하는 것은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외로움과 우울한 정서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등 개인의 정서와 대인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표현하는 것이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생각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일체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게 하여 사회적 관계망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전유희, 구철모, 정남호, 이대용, 2012). 최근 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현(2013)의 연구에서도 친밀한 사람들과의 온라인에서 관계유지 행동이 오프라인 활동과 별개로 사회 자본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오프라인과 별개로 대인관계에서 고유한 역할을 차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대인관계가 대인관계의 발전과 친밀감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것이 오프라인 대인관계 발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학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정서적 단서의 부족이나(Barua, Chellappa, & Whinston, 1997), 사회적 실재감의 부재(Connell, Mendelsohn, Robins, & Canny, 2001; Short, Williams, & Christie, 1976)와 매체로서의 한계로 인해(Daft & Lengel, 1986; Daft, Lengel, & Trevino, 1987) 복잡한 감정 교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Beniger(1987)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실제 커뮤니티의 환영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었다. Locke(1998)는 감소(reduction)가설을 통해 인터넷 사용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증가시키고, 현실의 실제 친구들과는 교류할 시간이 적어지므로 대인관계에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raut

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대인 관계는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감이나 헌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질을 낮추고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Nie(2001)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의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좀 더 최근의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정보처리이론의 창시자인 Walter(1992)에 의하면 사람들이 시각적, 청각적 단서가 없더라도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텍스트를 통해 대인관계의 인상형성이나 심리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배우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은 선택적인 자기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대면 소통보다 더 바람직한 면이 존재할 수 있다. Alison, Sanders와 Smallwood(2006)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존에 맺고 있는 친구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청각적 시각적 신호가 적은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내적인 감정을 현실보다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개방이 친밀감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Collins & Miller, 1994).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에 대한 상반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온라인 공간에서 대인관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다른 조절변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인관계의 친밀감 형성에 대한 Reis와 Shaver의 모형(1988)에 따르면 친밀감이란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게 중요한 자신의 감정과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이해 받았다고 느끼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친밀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자기개방과 반응성이다(Reis & Patrick, 1996; Reis & Shaver, 1988). 자기개방이란 개인적으로 중요

한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응성이란 자기개방을 들은 타인이 다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공유할 때, 처음에 자기개방을 한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한다. 반응성이 높은 경우는 타인이 자신의 자기개방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이며, 이러한 높은 반응성은 친밀감을 촉진한다. 친밀감의 대인관계과정 모형(Reis & Shaver, 1988)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Gore, Cross, & Morris, 2006; 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Manne, Ostroff, Rini, Fox, Goldstein, & Grana, 2004). 이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반응성은 자기개방과 친밀감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기개방은 친밀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지만 높은 수준의 자기개방은 대상을 보다 반응적이라고 지각하게 하고 이로 인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자신의 자기개방이 지각된 배우자의 반응을 매개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미혜 & 신희천, 2009).

지각된 반응성이 자기개방과 친밀감을 매개한다는 이론적 모형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달라질 수 있다. 첫째,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synchronous) 전화나 면대면 의사소통과는 다르게 SNS나 E-mail,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asynchronous) 상호작용의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동시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반응의 유무와 시기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한다(Daniel & Scott, 2006). Nardi, Whittaker와 Bradner(2000)는 이를 사용자가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타당한 거부(plausible deniability)로 표현하였다. 둘째, 의사소통의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성은 상대방에 대해 덜 공감적이고, 개인의 충동적인 측면을 적절히 조절하

여 표현하지 못하고, 반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개인의 의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거나 외집단을 배척하는 등(나은영 & 차유리, 2012)의 특성으로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부재하거나 오프라인보다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사용자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반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편의성, 확산성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에 낯선 사람들에게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기록하는 것처럼 자기개방과는 별개로 상황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심지어 낯선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개방과 반응성이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기개방의 친밀감에 대한 영향은 지각된 반응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친밀감은 자기개방-반응성-친밀감으로 연결되는 매개 모형이 적절하다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감은 자기개방과 반응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에 대한 자기개방의 예측력이 반응성에 의해 조절되는 모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밀감의 대인관계 과정 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자기개방, 지각된 반응성, 친밀감의 관계 모형을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방, 지각된 반응성, 친밀감의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자기개방과 지각된 반응성,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개방과 지각된 반응성으로 구분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성의 차별적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온라인 공간

에서의 친밀감의 대인관계 과정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친밀감의 모형의 실증적 검증을 통해 온라인 공간의 소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 양상에 관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교사와의 동의하에 수업 중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 및 동의서를 배부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된 장소로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령별로는 14세 8명(1.2%), 15세 128명(19.5%), 16세 474명(72.3%), 17세 46명(7.0%)로 나타났고 90%이상의 참가자는 인터넷을 이용한지 5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것으로 파악된다.

### 측정도구

#### 대인관계영역

대인관계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Zhou와 그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영역의 3가지 구분, 즉 지지집단(support group), 동감집단(sympathy group), 능동 네트워크(active network)의 3가지 구분을 사용하였다. 지지집단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접촉하며 서로 감정적 지지를 보이며 높은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며 동감집단, 능동네트워크의 영역으로 갈수록 관계의 강도와 친밀도는 감소하는 위계적 영역의 층(layer)를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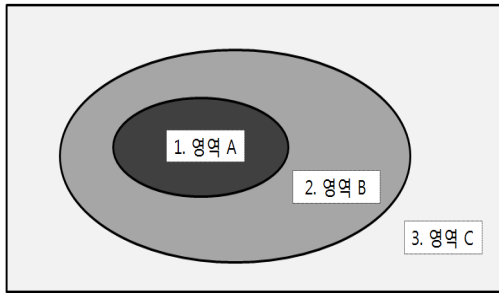


그림 1. 인간관계 도식

있다(Zhou, 2005, Pollet, 2010). 본 연구에서는 지지집단, 동감집단, 능동네트워크를 그림 1과 같이 A, B, C 영역으로 제시하여(권정혜, 2013) 그중 실제 대인관계를 활발히 맺고 있는 A영역의 사람들에게 대한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을 측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 자기개방

Valkenburg, Peter와 Schouten(2006)가 인터넷 상황에서의 자기개방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질문지를 번안한 것으로, 총 9개의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서의 동일한 문항으로 자기개방을 측정하였다.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은 지각된 관심폭(perceived breadth)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며(문항 예: ‘다양한 주제를 쉽게 이야기 한다,’ ‘새로운 정보를 듣는다.’), 5번부터 9번까지의 문항은 관계의 깊이(depth of online communication)를 측정하는 문항(문항 예: ‘비밀을 쉽게 이야기 한다,’ ‘내적 감정을 쉽게 이야기 한다.’)으로 되어있다.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은 1점(전혀)부터 4점(매우)까지이며, 점수분포는 9점에서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넓고 깊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89, .84로 나타났다.

### 반응성

Reis와 Shaver(1988)가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자기개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성에 대한 지각 차원을 세 가지 차원-이해, 승인, 돌봄-으로 제시한 것에 착안하여 Laurenceau과 그 동료들(1998)이 구성한 문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의 적절성에 대한 3문항(문항 예: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고 나를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응의 즉각성에 대한 3문항(문항 예: ‘상대방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주었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92, .90으로 나타났다.

### 친밀감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척도를 한종혜(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소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의, 대립, 조력, 만족, 친밀, 보살피기, 애정, 인정, 결속력’의 9개 소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소항목은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들은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얼마나 만족스러워 합니까?’). 원 문항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점=‘전혀’부터 4점=‘매우 많이’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친밀감에 대한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매개모형, 조절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에서 Ping(1996)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잠재변수로 만들어서 모형에 투입하였다. Ping의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잠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절변수가 연속변인인 경우 다집단 분석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상대적 적합도지수인 TLI, NFI, CF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중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RMSEA를 사용하였으며, 모형이 하나 이상일 경우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ECVI(Expected cross validation index)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 NFI의 경우 .95 값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5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Hu & Bentler, 1999) ECVI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수를 나타낸 모형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한다(Browne & Cudeck, 1992).

잠재변수 중 친밀감 변수의 경우 9개의 문항이 한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했다. 문항 묶음의 방법은 요인분석 후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에 따라 각 문항 집단의 평균값을 비슷하게 배분해, 척도 내에서 문항을 3묶음으로 나누어 잠재변수를 추정하였다. 이런 방법은 각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증가시키며, 모수를 줄여준다.

## 결 과

###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량

구조방정식에서 사용된 측정모형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사

표 1. 구조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량

	1	2	3	4	5	6	7	8	9	10	11
1. 관심폭_온라인	1										
2. 관계깊이_온라인	.53**	1									
3. 관심폭_오프라인	.45**	.20**	1								
4. 관계깊이_오프라인	.24**	.48**	.40**	1							
5. 즉각성_온라인	.58**	.42**	.24**	.15**	1						
6. 적절성_온라인	.52**	.50**	.26**	.23**	.72**	1					
7. 즉각성_오프라인	.28**	.13**	.45**	.30**	.44**	.35**	1				
8. 적절성_오프라인	.22**	.13**	.43**	.37**	.34**	.46**	.66**	1			
9. 친밀감1	.27**	.19**	.34**	.29**	.23**	.24**	.27**	.32**	1		
10. 친밀감2	.27**	.20**	.40**	.37**	.23**	.26**	.34**	.45**	.52**	1	
11. 친밀감3	.25**	.11**	.38**	.26**	.25**	.28**	.32**	.49**	.48**	.77**	1
평균	10.73	10.37	11.62	11.90	7.59	7.39	8.48	8.52	24.69	26.90	27.21
표준편차	3.02	4.00	2.53	3.92	2.29	2.41	2.11	2.24	3.31	4.50	4.81
왜도	-.43	.46	-.28	.25	-.18	-.14	-.15	-.26	-.06	-.06	-.12
첨도	.00	-.53	.13	-.55	-.18	-.47	-.12	-.25	1.00	-.02	-.02

\*  $p < .05$ . \*\*  $p < .01$ .

용된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하위요인과 친밀감의 측정변수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모형에 사용된 변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도 정규성의 기준(왜도<2, 첨도<7)의 기준을 만족하여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 가정을 충족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에서 Ping (1996)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잠재변수로 만들어서 모형에 투입하였다. Ping의 방법에서는 6가지의 분석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첫째, 측정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한다. 둘째,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측정변수의 평균 중심화를 실시한다. 셋째, 측정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분산과 공분산,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추정한다. 넷째, 추정된 값으로 상호작용항의 분산 상호작용항을 반영하는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계산한다. 다섯째, 계산된 값으로 상호작용항의 분산과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고정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의 종속변수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한다(Ping, 1996).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반응성의 매개, 조절모형**

오프라인 자기개방 및 지각된 반응성의 친밀감에 대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각각 그림 2, 3과 같이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도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오프라인영역에서는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 = 70.070$ ,  $df = 11$ ,  $TLI = .916$ ,  $NFI = .961$ ,  $CFI = .967$ ,  $RMSEA = .091$ ,  $ECVI = .180$ 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75.218$ ,  $df = 14$ ,  $TLI = .913$ ,  $NFI = .959$ ,  $CFI = .966$ ,  $RMSEA = .082$ ,  $ECVI = .180$ 로 나타나 RMSEA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에서 매개모형이 조절모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매개모형의 경우 자기개방이 반응성에 미치는 경로( $\beta = .74$ ,  $p < .01$ )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반응성이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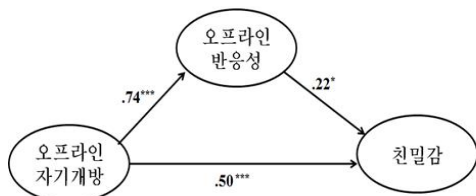


그림 2.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의 매개모형-오프라인 주. 오차항 생략.

\*  $p < .05$ . \*\*  $p < .01$ . \*\*\*  $p < .001$ . 계수는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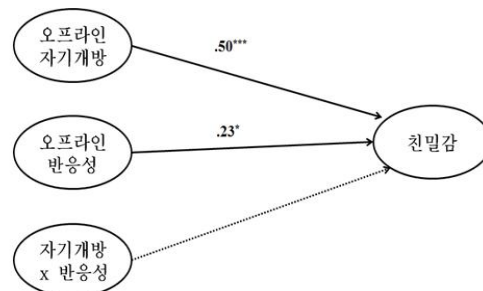


그림 3.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의 조절모형-오프라인

표 2. 오프라인 모형의 적합도

		$\chi^2$	df	TLI	NFI	CFI	RMSEA	ECVI
오프라인	매개모형	70.070	11	.916	.961	.967	.091	.180
	조절모형	75.218	14	.913	.959	.966	.082	.206

표 3. 오프라인 친밀감 모형의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총효과
오프라인 매개모형	오프라인자기개방	→ 오프라인반응성	.74**		
	오프라인반응성	→ 친밀감	.22*		
	오프라인자기개방	→ 친밀감	.50**	.16(.023-.298)	.66
오프라인 조절모형	오프라인자기개방	→ 친밀감	.50**		
	오프라인반응성	→ 친밀감	.23*		
	상호작용	→ 친밀감	.09		

\*  $p < .05$ . \*\*  $p < .01$ . 계수는 표준화계수.

에 미치는 경로( $\beta=.22, p<.01$ )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50, p<.01$ )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ootstrapping 으로 검증한 간접효과( $\beta=.16, 95\%$  신뢰구간: 023-.298) 또한 신뢰구간에 0으로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절모형의 경우에는 자기개방과 반응성이 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효과( $\beta=.09, p>.05$ )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효

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자기개방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반응성의 매개, 조절모형**

온라인 자기개방 및 지각된 반응성의 친밀감에 대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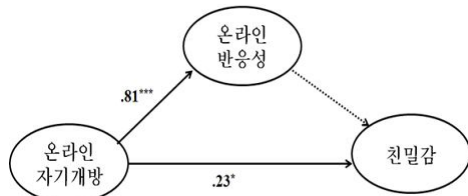


그림 4.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의 매개모형-온라인 주. 오차항 생략.

\*  $p < .05$ . \*\*  $p < .01$ . \*\*\*  $p < .001$ . 계수는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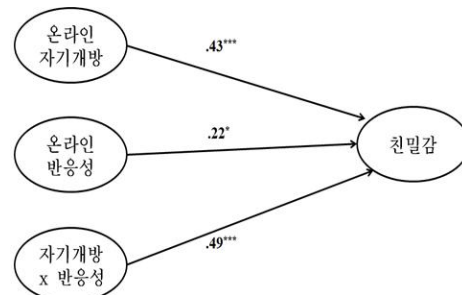


그림 5.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의 조절모형-온라인

표 4. 온라인 모형의 적합도

		$\chi^2$	df	TLI	NFI	CFI	RMSEA	ECVI
온라인	매개모형	61.369	11	.933	.969	.974	.084	.192
	조절모형	65.629	14	.952	.970	.976	.075	.167



각각 그림 4, 5와 같이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 = 61.369$ ,  $df=11$ ,  $TLI = .933$ ,  $NFI = .969$ ,  $CFI = .974$ ,  $RMSEA = .084$ ,  $ECVI = .192$ 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65.629$ ,  $df=14$ ,  $TLI = .952$ ,  $NFI = .970$ ,  $CFI = .976$ ,  $RMSEA = .075$ ,  $ECVI = .167$ 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지수에서 조절모형이 매개모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매개모형의 경우 자기개방이 반응성에 미치는 경로( $\beta = .81$ ,  $p < .01$ )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반응성이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 $\beta = .15$ ,  $p > .01$ )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bootstrapping으로 추정된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모형의 경우에는 자기개방과 반응성이 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효과( $\beta = .49$ ,  $p < .01$ )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개방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반응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나타나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두 독립변수의 평균치+1표준편차, 평균치-1표준편차를 회귀식에 투입하여 그림 5에 그래프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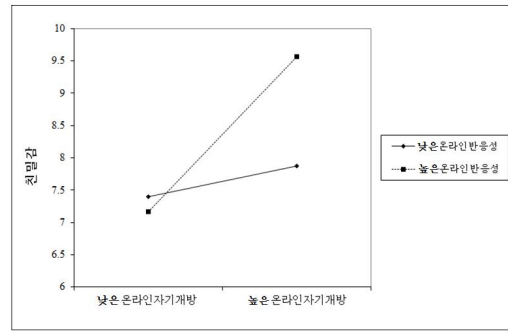


그림 5. 온라인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반응성의 조절효과

시하였다. 그림 5를 보면 온라인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반응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온라인 반응성이 높은 경우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온라인 반응성이 낮은 경우는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친밀감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개방,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반응성의 역할을 매개와 조절로 나누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각각 적용하였다. 그

표 5. 온라인 친밀감 모형의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총효과
온라인 매개모형	온라인자기개방	→	온라인반응성	.81**		
	온라인반응성	→	친밀감	.15		
	온라인자기개방	→	친밀감	.23*	.13(-.075-.350)	.36
온라인 조절모형	온라인자기개방	→	친밀감	.43**		
	온라인반응성	→	친밀감	.22*		
	상호작용	→	친밀감	.49**		

\*  $p < .05$ . \*\*  $p < .01$ . 계수는 표준화계수.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응성이 자기개방과 반응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프라인에서는 반응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이 반응성, 친밀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개방이 상대방의 반응성을 가져오고 이것은 상호역동하면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Reis & Shaver, 1988). Yalom과 Leszcz(2005)에 따르면 자기개방이란 항상 대인관계적인 행위이며 한 사람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맥락 속에서 자기를 개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개방을 통해 타인과 더 깊고, 풍부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Laurenceau와 그 동료들(2005)의 연구와 윤미혜, 신희천(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반복검증되었다. 결국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친밀감의 발전은 자기개방이 핵심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지지적인 피드백을 가져오며 이는 더욱 더 깊은 감정적 교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의 형성에서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역할은 오프라인에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이 친밀감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반응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개인의 자기개방이 타인과의 친밀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응성을 수반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기개방이 일어나더라도 적절한 즉시적인 반응성을 받는 경우 친밀감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반응성을 낮게 지각한 경우에는 자기개방을 하더라도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개방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반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과는 다르게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방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개인의 사건에 대한 개방이 일어나더라도 그 개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피드백

또한 반응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Kiesler, 1984). Ridings, Gefen과 Arinze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공동체의 소통에서 각 개인은 크게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소통하는 사람, 이따금씩 글을 올리고 소통하는 사람, 글을 읽기만 하고 전혀 글을 올리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범주는 글을 전혀 올리지도 않고 읽기만 하는 사람(Lurker)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서 친밀감 형성에 필요한 반응성, 즉 상대방의 개방에 대해서 알아주고, 타당화해 주고, 가치감을 주는 행위를(Reis, 1990; Sullivan, 1953)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단순한 텍스트나 이모티콘을 통해 상대방의 정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교류나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Barua, Chellappa, & Whinston, 1997). 따라서 자기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공감이나 지지반응 보다는 더 피상적인 수준의 반응이나 Facebook에서 ‘좋아요’처럼 모호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기개방과 독립적으로 반응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공간의 자기개방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습득하는 것 친밀감 형성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온라인공간에서 반응성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온라인 관계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온라인의 자기개방이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경우 온라인 관계는 오프라인을 보완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McKenna & Bargh, 1998). 하지만 반대로 자기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반응성을 받지 못해서 친밀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온라인관계의 몰입이 현실에서의 친구관계를 할 기회를 가질 기회가 적어져 해로울 수 있다(Kraut et al., 1998;

Nie, 2001; Nie, Hillygus, & Erbring, 2002).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개방이 친밀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권정혜 등(2013)의 연구에는 개인의 네트워크 그룹을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친하지 않은 사람까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이 친밀감과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까운 대상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하지 않은 대상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친밀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면 친밀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자기개방은 적절한 피드백과 지지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친밀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제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으로 모은 자료이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종단자료를 통해 온라인 공간의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변화모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측정도구는 오프라인 공간을 바탕으로 타당화된 도구이므로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공간의 자기개방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연구를 통해 개방과 피드백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SNS의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자기개방이나 반응성의 측면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SNS의 특성을 고려한 더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온라인 대인관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중심으로 한 경험연구가 아니라 전반적 대인관계영역에 대한 일반화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고, 반응성과 친밀감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차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의 대부분이 16세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반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감형성에 대한 모형을 오프라인의 친밀감의 과정모형과 비교하여 정교화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온, 오프라인에서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성의 차별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온라인 관계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가설인 감소가설과 촉진가설에 통합적 이해에 기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통해서 자기개방과 독립적으로 반응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공간의 자기개방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습득하는 것이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SNS사용에 있어서 자기노출뿐만 아니라 피드백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시사한다. 청소년이 SNS를 사용함에 있어 정보나 지식 등의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의 요소를 적절히 노출하여 다차원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은 친밀감을 증진시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SNS상에서 자기개방의 대상을 선택할 때 불특정 다수 보다는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SNS가 대인관계 발전의 중심역할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 간의 상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면으로 발전하는 것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SNS사용과 관련한 교육과 지침에 반응성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 공간의 사용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미, 남진열 (200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경영학연구*, 36(4), 897-923.
- 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 현 (2013).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30(2), 5-32.
- 나은영, 차유리 (2012).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군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103-121.
-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2), 383-398.
- 전유희, 구철모, 정남호, 이대용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친밀감 발달과정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1), 575-581.
- 조남익 (2011). 청소년기의 페이스북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267-289.
- 한중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ison Bryant, J, Sanders Jackson, A, & Smallwood, A. M. (2006). IMing, text messaging, and adolescent social network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1(2), 577-592.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243-277.
- Avrahami, D. & Hudson, S. E. (2006). Responsiveness in instant messaging: predictive models support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731-740.
- Bargh, J. A. & McKenna, K. Y.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 Rev. Psychology*, 55, 573-590.
- Barua, A, Chellappa, R. & Whinston, A. (1997). Social computing: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and groupware. *Handbook of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1760-1782.
- Beniger, J. R. (1987). Personalization of mass media and the growth of pseudo-community. *Communication research*, 14(3), 352-371.
-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101-1111.
-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57-475.
- Connell, J. B., Mendelsohn, G. A., Robins, R. W. & Canny, J. (2001). Effects of communication medium on interpersonal perceptions. *Proce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ACM SIGGROUP Conference on Supporting Group Work*. 117-124. ACM.
- Daft, R. L. & Lengel, R. H. (1986). Organizational

- information requirements, media richness and structural design. *Management science*, 32(5), 554-571.
- Daft, R. L., Lengel, R. H. & Trevino, L. K. (1987). Message equivocality, media selection, and manager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11(3), 355-366.
- Erikson, E. H. (1963). *Youth: Change and challenge*. Basic books.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ore, J. S., Cross, S. E. & Morris, M. L. (2006). Let's be friends: Relational self construal and the development of intimacy. *Personal Relationships*, 13(1), 83-102.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2), 415-42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iesler, S., Siegel, J. & Mc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10), 1123-1134.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Pietromonaco, P. R. (199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38-1251.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J. (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A daily-diary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323.
- Lenhart, A., Purcell, K., Smith, A. & Zickuhr, K. (2010). *Social media & mobile internet use among teens and young adult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Washington, DC.
- Locke, J. L. (1998). *The de-voicing of society: Why we don't talk to each other anymore*: Simon & Schuster.
- Manne, S., Ostroff, J., Rini, C., Fox, K., Goldstein, L., & Grana, G. (2004).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the rol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actions between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partn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89-599.
- McKenna, K. Y. & Bargh, J. A. (1998). Coming out in the age of the Internet: Identity "demarginalization" through virtual group partici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681-694.
- Nardi, B. A., Whittaker, S. & Bradner, E. (2000). *Interaction and outeraction: instant messaging in action*. In *Proceedings of the 2000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79-88. ACM
-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20-435.
- Nie, N. H., Hillygus, D. S. & Erbring, L. (2002). Internet us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ociability.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215-243.

- Ping Jr,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175.
- Reis, H. T. & Patrick, B. C. (1996). Attachment and intimacy. In *Intimacy*, 305-323. Springer US.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367-389,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Ridings, C., Gefen, D. & Arinze, B. (2006). Psychological barriers: Lurker and poster motivation and behavior in online communitie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8(1), 16.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ort, J., Williams, E. & Christie, B. (1976).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s*. London: Wiley.
- Subrahmanyam, K., Reich, S. M, Waechter, N. & Espinoza, G. (2008). Online and offline social network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by emergi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420-433.
- Valkenburg, P. M., Peter, J. & Schouten, A. P. (2006).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well-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Psychology & Behavior*, 9(5), 584-590.
- Walther, J. B. (1992). Interpersonal Effects in Computer-Mediated Interaction A Relational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19(1), 52-90.
- Yalom, I.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1 차원고접수 : 2014. 05. 21.

수정원고접수 : 2014. 08. 22.

최종게재결정 : 2014. 08. 25.

## Intimacy in Online Space: Self-Disclosure, Responsiveness and Intimacy

Woo, Sungbum

Kwon, Jung-Hye

Yang, Eunjoo

Korea University

Many new and important developmental issues are encountered during adolescence, which is also a time when Internet use becomes increasingly popular. Studies have shown that adolescents are using these online spaces to address developmental issues, especially needs for intimacy and connection to others. Reis and P. Shaver's (1988)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suggested both online and offline spaces. Six hundred and fifty-six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about the activiti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online/offline self disclosure, responsiveness and intimacy.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sclosure and intimacy was moderated by responsiveness in online space. On the other hand, responsiveness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self disclosure and intimacy on offline spac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online self disclosure, responsiveness, intimacy